

읽고, 쓰고, 만드는 사람들이 어우러진 책마당

'98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... 한국종합전시장서 5월12일부터 6일간



· 국제도서전으로 격상되어
올해로 다섯번째 열리는
'98 서울국제도서전에는 67개국
1500여사가 360개 부스에
25만여권의 도서를 출품, 출판물
교역의 활성화를 기대하게 했다.



· 첫날 개막식에는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가 참석,
대한출판문화협회 나춘호 회장을 비롯한 관계 인사들과
함께 전시장을 둘러보았다. 김총리 서리는
민음사 부스에 들러 <이항 견문록>을 시는 등
전시된 책들을 관심 있게 보았다.



· 전시기간 중 정부수립 50주년을
기념해 출판 50년을 돌아보는
<그 시절, 이 책을 아십니까> 특별전은
관람객들의 각별한 관심을 끌었다. 특히
전시회 속의 특별전 <이 교과서 앞에서 꾀던
꿈들을>에는 해방 전후부터 90년대까지
초등 교과서와 참고서를 전시해 어린이와 성인들
모두 흥미롭게 관람했다.



· 미국· 영국· 프랑스· 독일· 중국· 일본 등
외국의 출판사도 적극적인 저작권
관측활동을 벌였다. 올해는 베르텔스만
그룹이 진출하는 등 한국에 관심을
보여온 독일이 활발히 홍보를
펼쳤으며, 해마다 놀라운 성장을
보였던 중국도 적극적인
저작권 홍보로 아시아
국가들의 관심을 모았다.



·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한 '교보문고 북카페'에서는
비디오 상영, 작가 문학강좌, 유명 저작가의 합동사인회 등
프로그램과 문학 퍼즐대회,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등 독자행사,
한국 출판광고 변천사, 잡지 창간호 특별전시 등을 펼쳐
전시장 속에 이색적인 즐거움을 안겨 주었다.



· 어느해보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치러진 이번 도서전에서
전시장 왼편에 자리한 아동출판사 부스의 볼거리 많은 행사는
어린이와 부모들의 시선을 끌었다.

